

국 제

# 美 “日에 첨단 F-22 판매 용의” 동북아 군사력 균형 깨나

## 한국, F-15K 차세대기 사업 수정해야 할 판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25일 일본 정부가 미제 최신 전투기 F-22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잇단 언론 보도와 관련, 첨단 차세대 전투기 판매 협의의 의사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중국과 남·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에 힘의 불균형 초래 우려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F-22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 정보 수집 및 정찰능력 등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꿈의 전투기’로 꼽히며 작전 반경이 2천km 이상으로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작전 범위에 넣을 수 있어 주변국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니스 윌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외

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이 록히드 마틴사의 첨단 전투기 F-22 ‘랩터’ 100대 구입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일본에 차세대 전투기를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국은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일본측과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구입하게 될 전투기가 어떤 모델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F-22와

F-35는 미 공군의 ‘제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최신 기종으로 가공할 화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앞서 일본은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일본 방위청이 노후화된 기존 전투기 대체를 위해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F-22, 보잉사의 F-15FX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도 20일 “일본이 최대 100대의 F-22 전투기 구매(300억 달러 규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작전반경 2천km 이상인 F-22를 실전 배치할 경우 작전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으



로까지 확대해 공군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반경 1천500km 안팎의 F-15K를 차세대 기종으로 선정한 우리 군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F-22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올림픽을 보이콧하라” 中 초긴장

## 세계 각국, 中에 인권 개선 촉구 티베트 독립 외친 미국인 체포

베이징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세계 각계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요구사항이 티베트 독립, 그리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 개입 촉구 등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로를 공개키로 한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에베레스트산 성화봉송로 예정지에서 미국인 4명이 티베트 독립을 외쳐 중국 당국을 난감케 하고 있다.

성화 봉송로 공개는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적인 시작행사였으나 이처럼



미국인 인권활동가들이 25일 중국령 에베레스트산 성화봉송로 예정지에서 베이징올림픽 구호를 차용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자유 티베트 2008”이라는 영문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인권 활동가와 단체가 자신의 명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선점하는 바람에 중국 당국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베이징올림픽 구호를 차용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자유 티베트 2008”이라는 영문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으며 중국 당국은 당시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기사와 함께 전원 체포했다.

중국인 성화 봉송로에 티베트어로 ‘초모람마(珠穆朗瑪)봉’로 일컫는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콩=연합뉴스

# “日, 2차대전 문제 해결책 찾아야”

## 백악관,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 백악관은 25일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2차대전 관련 역사 문제 해결책을 찾기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데니스 윌더 백악관 국가안보외

만 일본은 민주국가로서 이런(역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주변국들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더 보좌관은 그러나 종군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주요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선 심도있게 논의했기때문에 이번 방

문에서는 주요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달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1993년 당시 일본 총리가 사과한 사실을 강조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솔직함’을 높게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아베 訪美 맞춰 백악관 앞서 ‘위안부’ 시위

2차대전 중 아시아 국가여성의 성 노예화(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도착에 맞춰 26일 백악관 근처에서 열릴 것이라고 행사 조직자들이 24일 밝혔다.

경찰에 제출된 집회신고서에 따

르면 이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위안부 출신 생존자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일본 지도자의 방문중 미국에서 이런 시위행사가 열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행사는 국제 엠네스티와 미국 의회에 제출돼 있는 성 노예화 강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

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는 민간 단체들이 조직했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구환경소외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조직위 측은 집회가 백악관 앞 “침묵의 보도”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조승희 9분간 170여발 발사”

버지니아공대 총격 참사 사건의 범인인 조승희는 지난 16일 약 9분 동안 170여발을 무차별 발사해 대규모 희생자를 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경찰이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의문점인 조승희와 첫 희생자 예밀

## 범행동기 등 못 밝혀 수사 장기화 가능성

리 힐셔와의 관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종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찰은 예상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스티븐 플래티 버지니아주 경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승희가 공학부 건물인 노리스홀에서만 9분간 170여발의 총탄을 난사, 학생과 교수 등 30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굿바이 열친

고(故) 보리스 열친 전(前) 러시아 대통령의 딸 타티아나가 25일 모스크바의 노보데비치에 공동묘지에서 거행된 장례식 중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다. 뒤쪽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여인들은 열친의 또 다른 딸 엘레나와 미망인 나이나 여사(오른쪽). /AFP=연합뉴스

# 마약이 ‘뇌’를 리모델링 시킨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뇌를 ‘리모델링’시키며 마약을 끊어도 중독이 풀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브라운 대학 분자약리학-세포생리학교수 줄리 카우어 박사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쥐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해로인 중독 환자가 마약을 끊고도 겉보기 어려운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약에 의해 뇌 자체가 영구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우어 박사는 쥐에 모르핀을 투여하고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연접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24시간이 지나도 쾌감 유발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하는 억제성시냅스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한마디로 뇌의 “자연 브레이크”가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 한번 투여된 모르핀이 24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이상 뇌에 남아있지 않는데도 이 약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카우어 박사는 설명했다. /파리·사카이AFP·로이터=연합뉴스

- 목포 시민 여러분은 1등 시민입니다 -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운 목포, 밝은 미래의 목포가 보입니다.



- 목포시의회 임직원 일동  
 보해양조(주) 사장 임건우  
 대표이사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형  
 회장 김용주  
 (주)상그리비치호텔 임직원 일동  
 (주)동명전력 대표이사 임영춘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경구

- 남옥건설 대표이사 윤남  
 우미건설삼학도 임직원 일동  
 복원현장사무소 임직원 일동  
 (주)옥주건설 대표이사 김영권  
 정승건설(주) 대표이사 조인형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이혁영  
 카훼리레인보우(주) 회장  
 (주)남해고속 대표이사 성기순

- 진도운수(주) 대표이사 박관영  
 CN석제물류센터 임직원 일동  
 목포시의사회 회원 일동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임직원 일동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목포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사회복지법인동민영아원 임직원 일동  
 동민복지재단동민어린이집 임직원 일동